

글로벌대학 공모 대응 공조체계 돌입

김관영 지사-지역 대학 총장들, 소통 통해 전략 모색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학들의 2024년도 '글로벌 대학30' 선정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도내 대학 총장들과 2024년

글로벌대학 공모 대응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교육부가 2024년 글로벌대학30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비수

도권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공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와 도내 대학이 함께 '대학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개 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대학 지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신청유형에 연합대학 유형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1개 대학이 신청하는 '단독형'과 대학 간 통합을 조건으로 하는 '통합대학'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올해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포괄적 연합' 수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교육부는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제'로 연합대학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은 연합유형을 포함한 3가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의 혁신계획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고, 지역과 지역내 다른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의 '혁신기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글로벌대학 심사 시 '전북도와 지역대학간 협력관계가 상당히 모범적이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올해도 지자체·대학 간 연대를 넘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대학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전주 공에서 도내 대학 총장들과 2024년 글로벌대학 공모 대응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전북자치도, 행안부 전국 안전지수 공표서 범죄 분야 1등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비단 범죄로부터 안전한 데 그치지 않고 화재, 생활 안전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에서 준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세종과 함께 범죄 분야 1등급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함께 범죄 분야에서 1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교통사고 4등급 △화재 3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 등 대체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생활안전, 자살 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상승하는 등 그간 도민 안전에 대응해 온 전북도정이 결실을 보이기도 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진안군이 화재·범죄·자살 분야 등 3개 분야

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전주시와 무주군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이 상승해 개선 정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은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뽑혔다.

지난 5월 행정부지사 주재 안전지수 향상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수 개선 컨설팅 중앙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전북자치도, 부안)됐고, 그밖에 신규사업 발굴·추진,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 등 지역안전 지수 향상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특히, 울산시 소재 지역안전지수 평가 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수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으로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컨설팅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역안전지수 평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움직임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농식품 바우처로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총 2만3678가구, 67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선정돼 총 2만3,678가구에 67억 원(국비 33억5,000만원, 시군비 3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공모했으며, 전북에서는 3개 시군이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20년 전국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24개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2020~2021년 1개 시군, 2022~2023년 2개 시군, 2024년 3개 시

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며,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씩 총 6개월간 바우처카드를 지급받아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등 영양보충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CU 등 6개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4개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과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민생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운동읍 도민 안전실장과 사회재난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김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대상 세대를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은 202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민생정책 사업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에 취약한 세대를 대상으로 종합 전기안전 점검과 긴급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는 추경에 2억원 확보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도내 안전취약계층 2,229세대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작년 김제시 용지면 점검 노인세대 2세대 방문해 사업 효과와 추가 지원 요구 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한국전기안전공사·시군이 올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운동읍 도민안전실장은 방문 세대

전기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겨울철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더욱 철저히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운동읍 실장은 "도민들이 걱정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선제적 안전점검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창업 활성화 위해 파트너 찾는다

전북자치도,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기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신규정책으로 추진하는 '창창한 창업스쿨' 사업과,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창한 창업스쿨'은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 시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전문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1:1 밀착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시장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해서 최소 요건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제작, 모의경영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며,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집중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는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및 시스템 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도의 스타트업을 도내로 유치하는 사업이다.

유망한 도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 컨설팅,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면서 도내 이전 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TIPS 프로그램 추천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 모집은 공모를 통해 자격 요건 검토, 서류평가·발표평가,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창창한 창업스쿨'과,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별 각 1개 기관씩 총 2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